

## 2026년 경기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 심의평

2026년 경기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에는 총 27건이 접수되어, 1차 서류심사에서 1개 단체를 제외(정산일정 기준초과)한 26개 단체를 대상으로 2차 인터뷰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의와 관련하여 공모에 참여한 예술단체와 공연장에 대한 심의 평가 심의 전체에 대한 총평을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2026년 공모사업에 많은 단체가 참여하여 평가가 어려울 정도로 사업추진에 대한 열의를 보여 주었습니다. 지역에서 꾸준한 활동으로 역량을 향상시키고,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임을 알고 있기에, 단체의 우위를 가르는 것이 어려웠으나, [공연장과의 협력관계], [예술단체의 열정과 현실적인 운영능력],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성된 공연 프로그램], [예술단체의 발전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두고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특히, 지원단체가 사업의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가 하는 문제와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제시하였는가, 사업의 예산등이 현실적이었는가 등은 심의의 평가함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2026년 처음으로 [일반형]과 [클라우드 펀딩형]으로 구분하여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음에도, 많은 단체들이 특정유형에 집중되다 보니, 경쟁이 치열하여 순위에서 밀리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유형에 대한 구분은 현실적인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우수한 예술단체가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길 바랍니다.

또한, 예술단체 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공연장의 사업의지와 지원 내용에 대한 부분도 심의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공연장이 적극적으로 예술단체의 지원방안에 대한 설명과 제안 등은 심의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문화소외지역과 인프라 등이 활성화된 지역간의 공연 여건과 공연장 환경의 차이가 매우 크게 느껴지는 심의였습니다. 향후에는 문화소외지역 공연장과 예술단체의 매칭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해 주신 공연단체와 공연장 관계자분들의 노고와 열정, 지속적인 활동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